

DocuColor 5252,
Nuvera 120CP 도입

신우디앤피(대표 김진열)가 이번에 도입한 DocuColor 5252는 A4 기준 52ppm의 속도에 600×600dpi를 실현한 제품이다. 자동 이미지 회전, 동시출력, 작업 프로그래밍 기능이 있고 자동, 4색, 3색, 흑백의 4가지 컬러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 책표지, 앨범, 제품 카탈로그 및 브로셔, 학습지, 화보집, DM, 전단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또한 Nuvera 120 CP는 100/120 ppm의 속도로 인쇄하고 120 ipm 속도로 스캔할 수 있으며 용지 이송 스케줄링 시스템을 실현했다.

최대 8개의 급지대에 다양한 용지 유형과 무게를 처리할 수 있다. 페이지 레벨 프로그래밍, 잡 에ডি팅 기능이 있고

중철, 제책 등의 후가공 작업을 소화할 수 있다.

영등포 시장 일대 양면 디지털 실버 경 인쇄 전문업체로 정평이 나 있어 수많은 학원교재, 소수 작가를 상대로 한 소량의 흑백 경인쇄를 담당하던 신우디앤피가 POD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김진열 사장의 신념에 따른 결과다. 이를 통해 신우디앤피는 상업광고물량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진열 사장, POD에 대한 인식 확고

김 사장의 인쇄시장에 대한 변화 흐름과 POD에 대한 인식은 확고하다. 전통 방식에서 탈피한 디지털 인쇄 시장에 대

해 긍정적 전망을 갖고 있음은 물론, 온라인을 통한 주문형 인쇄사업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다.

영등포 지역에서만 20여년 인쇄의 외길을 걸어오며 경험하고 느껴온 바가 컸기 때문이다.

김 사장은 “이곳에서 같이 인쇄업을 영위하던 사람들 중에 새로운 기술에 재투자를 하지 않은 업체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 한 업종에서 대략 70%는 실패하고 30%는 살아남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패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쇄업을 사양 사업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양산업인 인쇄업에 재투자하는 것을 꺼려하며 현상유지에 급급해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세상이 변화하고 상황이 어렵게 바뀌면 이를 극복



영등포 지역 POD 리딩업체로 나선다

영등포 인쇄업체 밀집 지역에도 POD 디지털인쇄가 상륙했다. 신우디앤피(대표 김진열)가 지난 10월초에 영등포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후지제록스의 DocuColor 5252, Nuvera 120CP를 도입함으로써 영등포 지역 POD 선두업체로 나선 것이다.

하기 위한 도전이 필요하다. 또한 인쇄 물량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인쇄산업이 사양산업이 아니라 첨단산업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에서 POD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고 밝혔다.

디자인 · POD · 경인쇄 세 파트로 운영

신우디엔피는 디자인 · POD · 경인쇄 등 세 파트로 분화돼 있다. 그중에서도 신우디엔피의 '디'가 디자인의 약자인 것처럼 디자인에 대한 김 사장의 애착은 남다르다. 단순히 수주한 작업물량만 인쇄하는 업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획, 디자인을 소화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

일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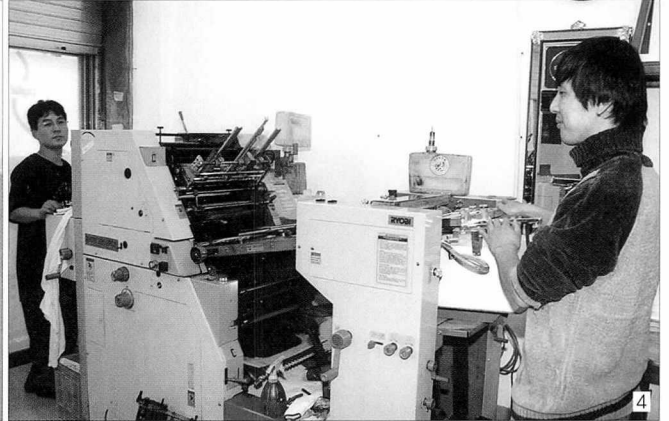
신우디엔피의 디자인실에는 실무경력 5~6년 차 이상의 베테랑급 디자이너들이 앞서가는 사고로써 감성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며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디자인, 고객 중심, 고객의 입맛에 적합한 디자인을 제공한다는 목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사장은 POD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는 디자인실 1명을 POD 담당으로 재배치해 그 부분을 강화했다.

또한 POD 시스템의 도입으로 흑백이었던 기존의 학원자료 및 기업제안서 등의 경인쇄 물량 복 표지에도 맞춤 책표지를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하드카피와 파일자료 모두 편집에서 출력까지 논스톱으로 작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가

변데이터 인쇄시장 및 맞춤인쇄 시장에도 도전할 계획이며 주문형 카탈로그, 할인권, 쿠폰, 바코드, 난수/넘버링 시장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우디엔피는 미쓰비시의 경인쇄용 CTP를 비롯해 중철기, 정합기, 라미네이팅기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 기획, 디자인에서부터 제판, 인쇄, 후가공에 이르기까지 인쇄의 모든 공정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인하우스 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김 사장은 기자에게 강남구 개포동 우리교회회의 집사라는 점을 꼭 실어달라고 부탁했다. 흔들리지 않고 인쇄인의 한길을 걸을 수 있게 해준 크나큰 버팀목이 신실한 신앙심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갑준 차장)



1. 신우디엔피 전경
2. 김진열 사장은 POD에 대한 열의가 매우 높다.
3. 디자인실은 신우디엔피가 자랑하는 부서이다.
4. 경인쇄실에선 양면실버마스터 인쇄를 주로 담당한다.
5. 제록스의 POD 시스템 설치로 디지털인쇄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6. 정합기, 중철기 등 후가공 기기까지 두루 갖추고 원스톱 서비스를 실현했다.

